

# THE CLASSIC 500

## ICON

새로운 길이 된 발자국들

## TRAVEL

일생에 한 번, 남미 아르헨티나

## HOTEL

홀리데이 인 펜타즈 호텔





## CONTENTS

---

|    |           |                          |
|----|-----------|--------------------------|
| 02 | INSIGHT   | 클래식, 불멸의 도전을 연주하다        |
| 04 | ICON      | 새로운 길이 된 발자국들            |
| 10 | SPACE     | 예술가의 일상으로 떠나는 모험         |
| 12 | TRAVEL    | 일생에 한 번, 남미 아르헨티나        |
| 20 | COMMUNITY | 제3회 더 클래식 500 패밀리 골프 대회  |
| 24 | PEOPLE    | 골프대회 우승 주인공 김영만 · 강정자 회원 |
| 26 | STYLE     | 엘리자베스 2세의 리얼 퀸 스타일       |

---

|    |              |                              |
|----|--------------|------------------------------|
| 28 | PENTAZ HOTEL | 홀리데이 인 펜타즈 호텔                |
| 36 | LA GOUTTE    | 라구뜨 시그니처 메뉴 & 여름맞이 신메뉴       |
| 42 | WEDDING      | 나를 빛나게 하는 파티 플레이스 웨딩홀 & 연회장  |
| 46 | FINANCE      | 따뜻한 금융으로 고객 가까이, 중앙농협 엄기화 차장 |

---

|    |      |                                     |
|----|------|-------------------------------------|
| 48 | NEWS | 커뮤니티 주요 소식 및 활동 캘린더<br>더 클래식 500 소식 |
|----|------|-------------------------------------|

더 클래식 500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고품격 시니어 타운과 호텔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더 클래식 500 MEMBERSHIP MAGAZINE'은 계간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사내보 / 계간 THE CLASSIC 500 여름호 통권 31호 발행일 2017년 6월 23일 발행인 박동현  
발행처 THE CLASSIC 500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90 +82-2-2218-5000 www.theclassic500.com 광고문의 +82-2-2218-5546  
촬영 노병연, SSSAUNA STUDIO 김경수 (표지 ©Douglas Scortegagna) 디자인&기획·편집 hongdesign& hongC +82-2-6916-4400



## 반짝이는 여름, 푸르른 선물 하나

푸른 설산, 웅장한 빙하, 끝없는 평원이 펼쳐진 남미 대륙의 파타고니아를 아시나요? 태초의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한, 우리에게 선물 같은 여행지입니다.

반짝이는 햇살과 녹음이 싱그러운 계절, 더 클래식 500에서도 선물 같은 기쁨을 누리보세요. 더 클래식 500은 일상에 품격을 더하는 예술 작품과 더불어 댄스 교실, 영어회화 프로그램 등으로 회원들의 당당하고 생기 넘치는 삶을 응원합니다.

여기에 <더 클래식 500> 매거진이 지혜와 철학, 정보와 공감의 콘텐츠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름호에서는 '열정과 도전'의 메시지를 담은 읽을거리를 준비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에서 찾은 열정의 철학, 우리 시대 도전과 모험의 아이콘, 일생에 한 번은 꼭 가 봐야 할 남미 아르헨티나 여행기, 입주 회원들과의 즐거운 패밀리 골프 대회까지. 늘 반짝이는 당신을 응원해 줄 라이프스타일의 가치를 만나보세요.





Gustav Mahler(1860. 7. 7 - 1911. 5. 18),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지휘자

# Classic,

## 불멸의 도전을 연주하다

‘클래식’(Classic)이라는 단어 때문일까. 클래식 음악은 새로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전통을 중요시하는 분야일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클래식 음악의 역사는, 작곡가들의 수많은 도전과 시도 그리고 혁신을 끊임없이 연주하며 완성되어 왔다.

글 윤석진(음악 칼럼니스트)

클래식 음악계에는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하던 작곡가나 작품들이 재조명되면서 사랑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오스트리아 작곡가인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만큼 사후 평가가 극적으로 급상승한 경우도 드물다. 빈 필, 뉴욕 필 음악 감독을 맡으며 지휘자로는 최정상급 대우를 받았지만 정작 그가 사활을 걸었던 작곡가로서는 인정받지 못했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 그런데 별세한 지 수십년이 지나고 작품들이 점차 재평가를 받아 무대와 음반을 내놓기 시작하더니, 20세기 세기말에는 교향곡 연주 횟수가 베토벤에 육박할 정도가 되었다. 말러의 작품들이 당대에 비난받은 이유는, 후기 낭만주의 양식을 극대화한 다양한 시도가 시대적 상식을 뛰어넘는 데서 기인한다. 동요 〈마르틴 형제〉를 편곡해 인용하는 등, 파격적인 시도를 담은 첫 번째 교향곡 〈겨인〉이 당시 가장 영향력 있던 평론가인 한슬리크로부터 “미쳤다”라는 혹평을 받은 이래로, 〈교향곡 8번〉의 성공적인 초연까지 그는 냉혹한 비판을 버티며 끊임없이 창작에 몰두했다.

말러의 교향곡 대부분은 80분에 달하는 대곡이지만, 아름다운 선율미와 함께 장대한 드라마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금세 빠져들게 된다. 그의 음악을 처음 접한다면 길이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폭발하는 드라

마가 내재된 〈교향곡 1번〉이나 아름다운 ‘아다지에토’ 악장이 포함된 〈교향곡 5번〉도 좋지만 클롭슈톡(Klopstock)의 시 「부활」에서 영감을 받아 죽음이라는 주제를 감동적으로 승화시킨 〈교향곡 2번〉 ‘부활’을 권하고 싶다. 초연 때 평단으로부터 ‘야만적’, ‘불협화음’, ‘거대증’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어느덧 명망 높은 지휘자라면 한 번쯤 무대에 올리는 중요한 레퍼토리가 되었다. 특히 마지막 악장의 교향곡에는 대규모 합창을 담아 대담하고 강렬한 구성을 선보였다. 영웅의 장례식(죽음)으로 포문을 여는 1악장에 이어 삶과 죽음을 고찰하는 악장들을 지나 장대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5악장의 말미에는 ‘살기 위해 죽으리라’는 구절을 합창하며 절정으로 치닫는다. ‘부활 하리라 내 영혼이여’를 외치면서 파이프 오르간으로 고조하는 구간을 통과할 때면 어느덧 몰아지경에 빠져들게 된다. 우수한 녹음이 많지만 작곡가 의도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이먼 래틀(버밍엄 심포니, 1986, Warner)이 지휘한 음반을 가장 추천하며, 균형감 있는 명연인 주빈 메타(빈 필, 1975, Decca)와 하이팅크(베를린 필, 1993, Philips) 음반도 빼놓을 수 없다. 탁월한 명반으로 클래식 음악 작곡가들의 활화산 같은 열정과 도전 정신을 느껴보자. 가슴 뜨거워지는 경험이 될 것이다.





# ICON

앞사람을  
쫓아가긴 쉬워도  
앞장서서 걸어가긴  
어렵다.

다져진 길을  
따라가긴 쉬워도  
불모지에 뛰어들긴  
어렵다.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걸어난  
사람들의 발자국이  
위대한 이유다.

이들의 발자국은  
오늘날, 새로운 길이  
되었다.

글 김은성 에디터  
자료제공 51BOOKS, 궁리출판

# 새로운 길이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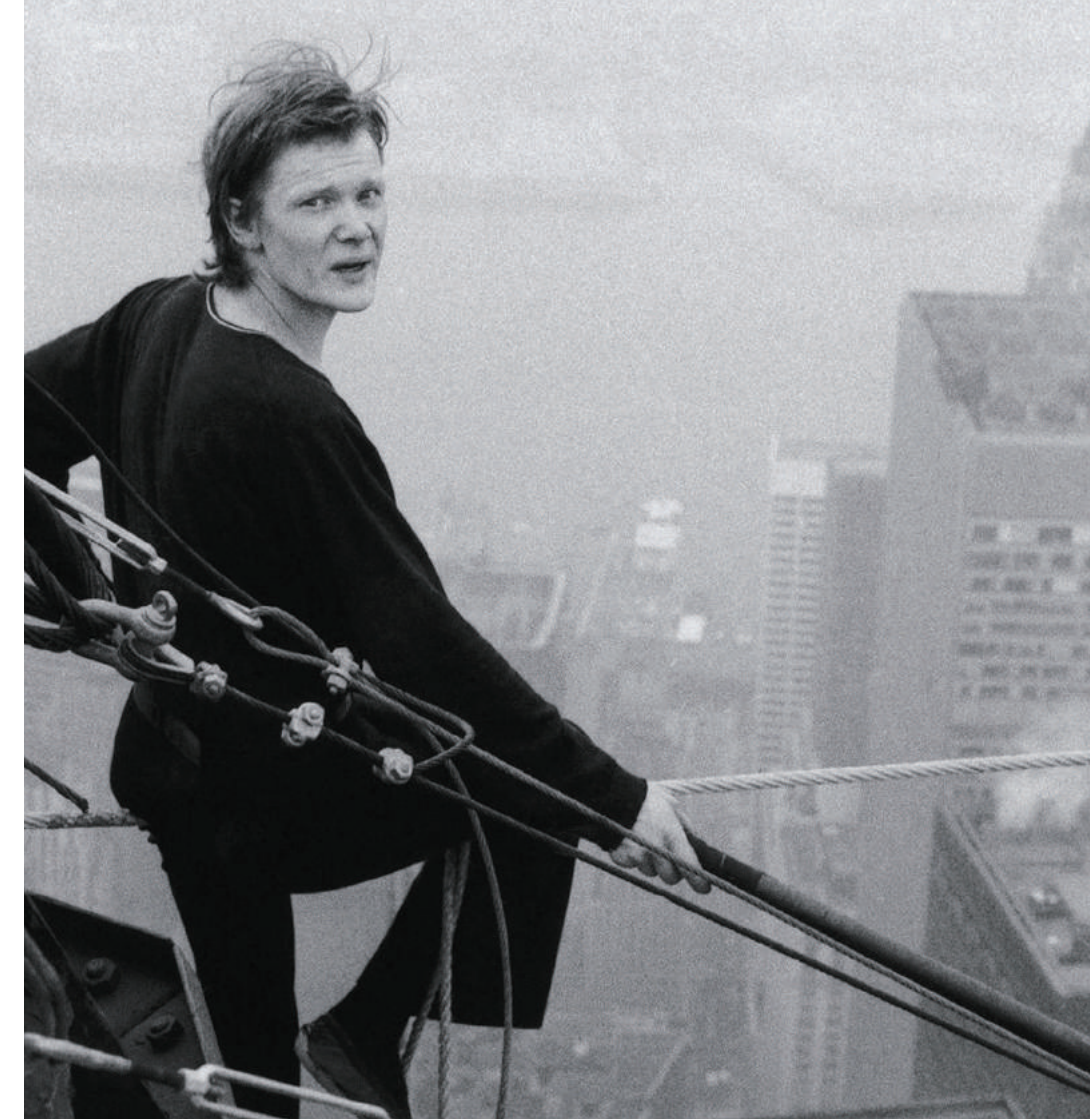
# 발자국들



“말세로군, 말세야.” 승마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눈이 일제히 바지를 입을 여성에게로 향했다. 당시 바지는 남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깃털로 장식한 요란한 모자를 쓰고 바닥에 끌리는 긴 드레스를 입고 다녀야 했다. 남성용 승마복을 여성용으로 개량한 솜씨 좋은 이의 이름은 가브리엘 샤넬. 하지만 샤넬에게는 ‘옷이란 입을 사람이 편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일 욕심이 있었다. 동시대 여성들은 움직임이 자유로우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은 디자인에 열광했다. 몸을 옥죄던 코르셋은 벗겨졌고 거추장스러운 장식은 떼어졌으며 제대로 걸을 수 조

차 없게 만들던 드레스의 긴 단은 잘려나갔다. 『보그 온: 코코 샤넬』에 의하면 샤넬에 의해 여성의 몸은 자유를 얻었다. 15년간 프랑스 패션계를 떠났던 샤넬은 일흔한 살이라는 나이에 복귀 패션쇼를 연다. 샤넬에게 노년은 쇠락과 체념의 시기가 아니었다. 활화산 같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의 연장선일 뿐. 1년 후, ‘샤넬 룩’이라는 투피스 스타일을 선보임으로써 현재 여성복의 기본 디자인을 창조해낸다. “패션은 변하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자유라는 멀고도 추상적인 개념은 샤넬의 손끝에서 옷으로 태어났다. 그렇기에 샤넬의 도전과 혁신 결과는 찰나의 패션을 넘어 영원한 스타일로 남았다.

## 여성의 몸에 혁신적인 자유를 입히다 *Gabrielle Chanel*



## 지금 나는 당신의 불가능 위에서 있다

*Philippe Petit*

1974년 8월 7일 아침 6시 45분. 한 남자가 공중을 걷고 있다. 가느다란 줄 위에서 장대 하나만을 든 채, 110층짜리 미국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사이를. 외출 타기 곡예사, 필리프 프티는 관중을 향해 미소 짓는 여유까지 보이며 45분 동안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다. 시작은 단출했다. 무명의 길거리 곡예사였던 18살 소년은 에펠탑보다 100m 더 높은 빌딩이 뉴욕에 건설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그날부터 그 빌딩 사이를 걷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꿈이 된다.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과 호주 시드니 항 철교 횡단 등의 기습 공연으로 노하우를 쌓는가 하면 건설 현장 인부로

위장, 몇 달간 현장에 잠입해 건물 구조를 파악했다. 그리고 6년 후, 안전장치 하나 없이 쌍둥이 빌딩을 횡단한 프티의 퍼포먼스는 온갖 신문의 1면을 장식했다. 목숨까지 걸고 줄타기를 하는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대답한다. “나는 오렌지가 세 개 있으면 곡예를 하고, 건물이 두 채 보이면 줄타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술적인 쿠테타에 정연한 이유는 필요하지 않았다. 이 괴짜 곡예사는 3년 전 6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외출 타기 연습 중이었다. 그리고 보니 인생이란 그의 줄타기와도 같지 않은가. ‘나이’라는 중력에 맞서 ‘꿈’이라는 줄위를 걸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침팬지의 어머니가 된 하얀 유인원

Jane Good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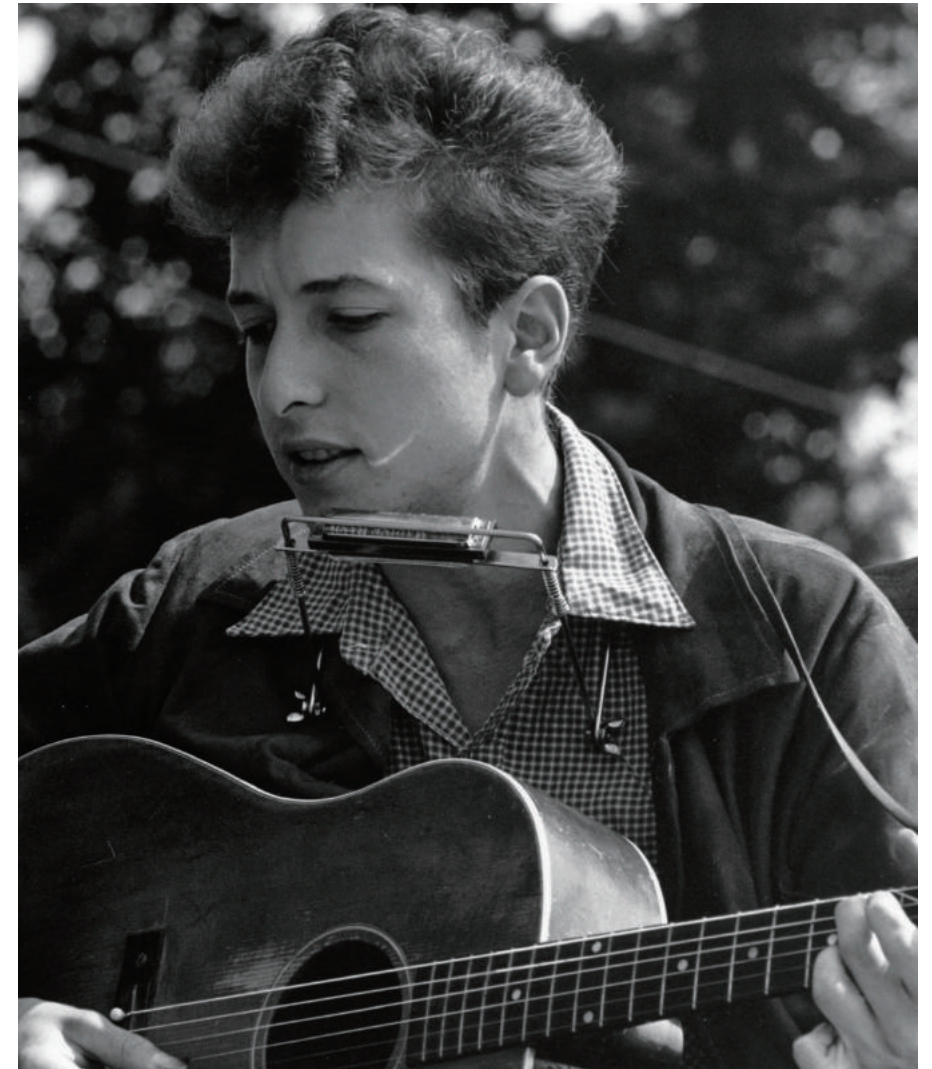
여기는 탄자니아 곰베 숲. 여느 때처럼 침팬지를 관찰하던 구달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다. 침팬지가 연한 나뭇가지를 구멍에 쑤서 넣어 흰개미를 잡아먹고 있었던 것. 이 발견은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통념을 무너뜨리며 세상을 발각 뒤집어놓았다. 당시 침팬지의 습성은 미지의 영역이었다. 구달이 야생의 침팬지와 50년간 함께하며 교감한 결과, 침팬지가 잡식동물이라는 점, 수십 가지 소리와 몸짓으로 의사소통한다는 점, 가족 간 유대 관계가 깊다는 점, 심지어 기생충으로 인한 복통을 달래려 쓴 약초도 눈 딱 감고 먹을 줄 안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대학도 안 나오고 연구 경험도 없는 젊은 여성’의 연구로 말이다. 성과만큼 방식도 획기적이었다. 실험대상을 일련번호로 관리하던 관습을 깨고 구달은 침팬지들에게 데이비드, 골리앗 등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각 생명체를 고유 이름으로 부르는 건 그에게 당연한 일이었다. 타잔처럼 아프리카에서 살겠다는 꿈을 꾸던 소녀는 52살,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로 눈을 돌린다. 침팬지를 보호하려면 환경을 함께 살리려는 노력이 절실함을 깨닫고 동물학자에서 환경운동가로 거듭난 것. 여든을 넘긴 청춘은 여전히 개인의 생각과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유다!” 예수를 팔아먹은 변절자 유다. ‘귀를 위한 시’라는 찬사를 받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밥 딜런에게 쏟아진 야유였다. 때는 1966년,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 무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딜런은 포크 음악을 상징하는 어쿠스틱 기타 대신 전자 기타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팬들은 경악했다. 포크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록의 상업성과 타협한 변절자였다. 음악평론가 데이브 마시는 “그건 공연이 아니라 전쟁이었다”라고 당시 풍경을 회고했을 정도. 딜런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1964년, 비틀스가 미국 전역을 휩쓸며 정통 포크는 점차 낡은 것이 되어갔다.

어쿠스틱 기타 하나만으로는 포크 장르의 명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직감한 딜런은 포크와 록을 결합하는 연금술을 행한다. 그는 도전과 실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결과적으로, 1966년 뉴포트 페스티벌 공연은 역사적으로 그의 가장 훌륭한 공연이 됐다. 포크 록 장르의 도래를 알리는 기념비적인 순간이 된 것이다. 이후 수많은 아티스트가 포크 록 선구자의 길을 뒤따랐다. 자신이 존경하던 대선배 우디 거스리의 메시지, ‘포크 음악은 민중과 함께 숨 쉬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음악’임을 잊지 않았던 밥 딜런. 일흔다섯의 노장은 지난 4월, 38번째 앨범을 발매하며 또 다른 변화를 그리는 중이다.

음유시인은 왜 변절자가 되어야만 했나 *Bob Dylan*







앤티크 가구가 가득한 빈티지 전문가 버지니아 베이츠(Virginia Bates)의 공간

놀라운 작품을 끊임없이 선보이는 예술가들, 그 영감의 원천은 어디일까? 그들이 일상을 보내는 사적인 공간을 들여다보면 답을 알 것도 같다. 크리에이터의 집과 작업실로 모험을 떠나보자. 인테리어 전문지에 소개되기 위해서 멋을 한껏 부린, 연출된 집이 아닌 ‘진짜’ 작업하고 생활하는 그곳 말이다.

글 백수정 에디터  
자료제공 대림미술관, 1984 출판사



주얼리 디자이너 엘리 탑(Elie Top)이 집이자 작업실로 사용하는 파리의 아파트

# 예술가의 일상으로 떠나는 모험

집 그리고 작업실,  
가장 내밀한 공간으로의 초대

집을 꼼꼼히 살피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다. 평소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의 집에는 책이 가득 꽂혀있는 책장이, 음악을 즐기는 사람의 집에는 커다란 스피커와 여러 음반이 놓여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선호하는 컬러와 오브젝트에서 취향을 눈치챌 수 있고, 생활하는 방식과 동선에서 라이프스타일이 가감 없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이를테면 칼라거펠트나 크리스찬 루부탱의 사적인 공간은 어떨까? 누구나 한번쯤 호기심을 가져볼 만한, 예술가들의 내밀한 공간을 끈질기게 기록한 이가 있다. 사진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토드 셀비는 2008년부터 세계의 수많은 크리에이터를 쫓아 그들의 공간을 찍어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즐거운 나의 집>과 도서 『패셔너블 셀비』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토드 셀비의 사진을 살펴보면 칼라거

펠트가 엄청난 독서광이며 크리스찬 루부탱이 명성에 비해 검소한 작업실을 가졌음을 알아챌 수 있다. 세계 각국,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의 기발한 공간도 여럿 엿볼 수 있다. 한때 배우였으며 주목받는 빈티지 부티크의 대표였던 버지니아 베이츠의 손때 묻은 앤티크한 거실이나 헤어 디자이너 카모 카츠야가 어린 딸과 함께 사용하는 소박하고 정겨운 응접실에서는 평소의 취향과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글 한가운데에서 태양빛과 장작불로만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에릭 워너와 마이아 헨리, 아담한 보트를 집으로 삼아 런던 운하를 누비는 사진작가 레즈 우드의 자유분방한 라이프스타일 속에는 유연한 사고방식과 굳건한 크리에이터로서의 신념이 느껴진다. 사적인 공간만큼 한 사람의 가치관을 날것으로 품은 것도 많지 않다.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탐험하며 전에 없던 작업을 시도하는 이들의 꾸밈없는 일상을 둘러보다 보면 단조로운 일상에서 크리에이티브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 정글 속에 위치한 에릭 워너(Eric Werner)와 마이아 헨리(Mya Henry)의 야외 레스토랑

**전시** The Selby House: #즐거운\_나의\_집  
종로구 대림미술관, 2017. 4. 27. ~ 10. 29.  
**도서** 『패셔너블 셀비』, 2016. 1984 출판사 펴냄  
**블로그** Theselby.com



# TRAVEL

일생에 꼭 한 번은 가 봐야 한다는 남미 대륙. 남미 여행 코스 중 특히 아르헨티나는 '신의 작품'인 자연의 위대함을 감상하는 동시에 즐거운 문화적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곳이다. 태초의 자연을 간직한 파타고니아부터 세계 3대 폭포의 위용을 자랑하는 이구아수 폭포, 탱고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시니어들의 로망을 실현해줄 아르헨티나로 떠나보자. 글 박산하(『지금, 우리, 남미』 저자)



일생에 한 번, 남미 아르헨티나



Argentina





© Justin Vidamo, Flickr

1



© Alexa Nbg, Pixabay

2

## 시간이 얼어붙은 곳, 파타고니아

1520년 남아메리카 최남단을 탐험하던 마젤란은 커다란 원주민의 발자국을 보고 그 지역을 '커다란 발'이란 뜻의 '파타고니아'라고 불렀다. 당시 이 지역 원주민은 거인족이란 뜻의 파타곤(patagón)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에 와서 평균 키가 180cm가 넘는 테우엘체족으로 추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 스페인 사람의 평균 키는 150cm 남짓했기 때문이다. 파타고니아는 안데스 산맥을 기준으로 서부의 칠레 영역과 동부의 아르헨티나 영역으로 나뉜다. 이 중

아르헨티나 지역은 건조하고 넓은 고원이 펼쳐져 있다.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아주 적은 인구가 살고 있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하다. 태고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어 최근엔 관광산업이 발달 중이다.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는 날씨가 비교적 온화한 봄과 여름에 둘러보기 좋다. 파타고니아의 빙하를 보려면 엘 칼라파테의 페리토 모레노 빙하 국립공원으로 가면 된다. 이곳의 빙하는 남극과 그린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안데스 산맥에서 설 새 없이 내리는 비와 눈이 축적돼서 만들어지는데, 꽤 빠른 속도로 순환한다. 1년에 100~200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인다. 실제로 보면 거대한 규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눈앞에 보이는 빙하의 높이만 해도 60m가 넘고, 저 멀리 국경을 넘어 칠레까지 이어진 빙하는 길이만 30km에 달한다고 한다.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산책로에선 이따금 소리를 내며 빙하 조각이 녹아 떨어져 나가는 파열음도 들을 수 있다. 빙하가 떨어져 나가기가

300~4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다시 말해 부서져 내린 빙하는 어찌면 400년 전에 내린 눈이거나 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배를 타고 모레노 빙하를 둘러보고 돌아가는 길에는 빙하 조각을 넣은 위스키를 맛볼 수 있다.

1,2 극지방을 제외하고 지구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꼽히는 페리토 모레노 빙하가 있는 파타고니아. 높이 60m가 넘는 빙하는 국경을 넘어 칠레까지 30km에 이른다.



## 세계 3대 폭포의 위엄, 이구아수 폭포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이구아수 폭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접경 지역에 있다. 언젠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상회담 때 두 정상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도 오갔다고 한다. 아르헨티나 정상이 브라질 정상에게 우리 턱에 관광 수입이 좋을 테니 사례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브라질 정상이 이렇게 답했다. “그럼 어디 안 보이게 가려 보시든가요.”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이구아수 폭포는 영화에서도 종종 등장했다. 선교사들의 기적 같은 감동 실화를 그린 영화 <미션>(The Mission, 1986)에서 가브리엘 신부(제레미 아이언스)가 오보어로 '넬라 판타지아'를 연주할 때 나온 배경이 이구아수다. 영화 속에 나오는 원주민은 이구아수 폭포 인근에 사는 과라니족이다. <인디애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에서도 등장인물들이 보트를 타고 이구아수 폭포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장국영과 양조위가 나온 영화 <해피투게더>(Happy Together, 1997)에서 처음과 끝을 장식한 배경도 이구아수 폭포다.



1

이구아수는 과라니족 언어로 '큰물', '위대한 물'이란 뜻이다. 이구아수 폭포는 이구아수 강을 따라 약 3km 길이에 270여 개의 폭포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악마의 목구멍(Garganta del Diablo)'이라고 부르는 폭포는 마치 판타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엄함을 뽐낸다. 폭포로 쏟아져 내리는 물의 양은 1초에 1,000t에 달한다. 대부분 낙차 높이가 60m 내외고, 최대 82m인 것도 있다.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물이 튀다가보다 옷을 입고 샤워하는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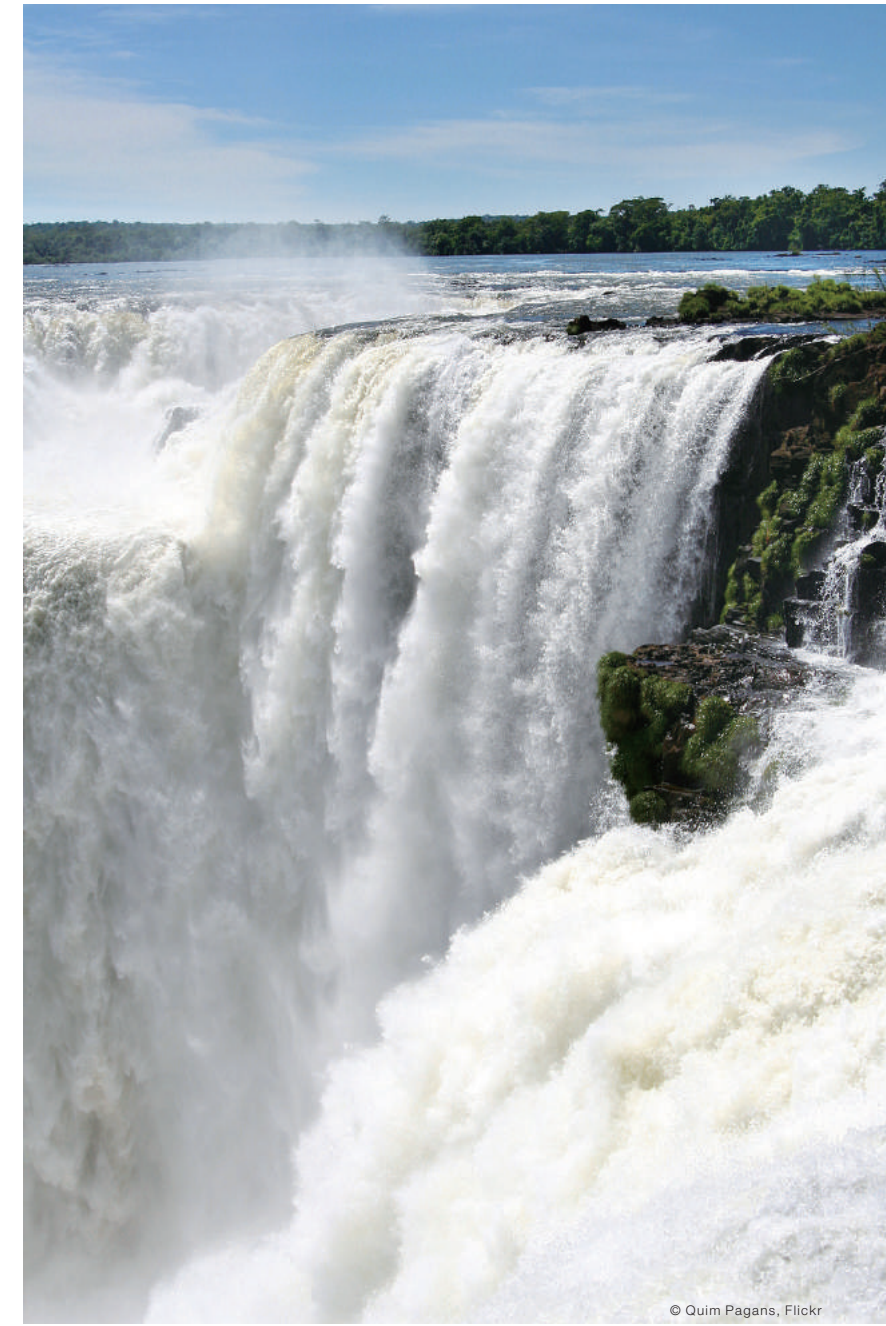
아르헨티나에서 이구아수 폭포를 감상하려면 국립공원 방문객 센터에서 작은 열차로 갈아타고 종점인 산책로 입구까지 간다. 여기서 약 30분 정도 가면 '악마의 목구멍'에 다다른다. 브라질에선 굽직굽직한 몇 개의 폭포만 감상할 수 있지만, 아르헨티나에선 산책로를 걸으며 다양한 폭포를 관람할 수 있다. 산책로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폭포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길이다. 강 중류의 산마르틴으로 가는 선착장에선 이 일대를 유람할 수 있는 보트 투어를 신청할 수 있다.

- 1 이구아수 폭포로 가는 공원 내부는 자연 그대로 우거진 삼림으로 뒤덮여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 2 2.7km에 걸쳐 270여 개의 폭포들로 이루어져있는 이구아수 폭포.
- 3 가장 깊고 많은 물이 쏟아져 '악마의 목구멍'이라 불리는 지점의 광경.

2



2



3





© Prayitno, Flickr

1



© Joshua Blount, Flickr

2

## 열정의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여행의 관문이 되는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좋은 공기' 혹은 '좋은 바람'이라는 뜻이다. 이름만으로도 이 도시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가늠할 수 있다. 파사로운 남반구의 햇살을 받으며 알록달록한 골목을 즐기고, 노곤한 몸을 와인과 탱고로 달래다 보면 저절로 몸과 기분이 들뜬다. 수도답게 아르헨티나의 정치·경제·산업 등 모든 것의 중심이다. 한때 영화로웠던 과거가 도시 곳곳에 살아 숨쉬고, 예술 문화도 발달해서 '남미의 파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들의 문화 수준을 드러내는 곳이 콜론 극장이다.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으로 꼽히는 이곳은 음향 상태가 좋아 오페라 지휘자들이 선호하며 거의 매일 세계 정상급 오페라 및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린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이야기하면서 탱고를 빼놓을 순 없다. 도시 곳곳엔 화려한 탱고 극장이 마련돼 있고, 광장과 거리에서 종일 탱고 음악이 흘러나온다. 거리엔 매혹적인 옷차림을 한 남녀가 농염하게 탱고를 춘다. 탱고를 처음 듣는 이라도 이곳에선 탱고의 치명적인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많은 탱고 카페 중 한 곳을 추천한다면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토르토니'를 꼽는다. '탱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카를로스 가르델이 살아있을 때 단골로 드나들었던 곳이다. 이곳에선 정갈하게 턱시도를



© Gobierno de la Ciudad de Buenos Aires, Flickr

3

4



© Nico Kaiser, Flickr

빼입은 노신사 웨이터들이 점잖게 서빙하고, 탱고 음악이 은은하게 공기 속에 섞여 있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무대에선 매일 밤 탱고 쇼가 펼쳐진다. 1시간 동안 펼쳐지는 쇼를 관람하고 있으면 탱고가 왜 사랑과 낭만의 춤인지 알 수 있다. 느리고 빠른 변주로 가득한 탱고는 묘한 열정에 들뜨이는 마음을 더욱 두드린다. 탱고의 역사는 팍 내음 가득한 라 보카(La Boca) 지구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민자들이 이곳에 건너와 노동을 마치고 하루의 피로를 풀면서 탄생한 춤이 탱고다. 그들은 선술집에서 와인과 맥주를 마시며 탱고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다. 무엇보다 아르헨티나에선 6,000만 마리가 넘는 소가 광활한 초원에서 자라는데, 덕분에 양질의 소고기를 맛볼 수 있는 것도 특권이다. 소고기에 소금을 뿌려 장작불에 천천히 구워낸 아르헨티나 전통요리인 아사도를 마음껏 즐겨보자.

- 1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매일 밤 강렬하고 관능적인 탱고 공연이 펼쳐진다.
- 2 소고기에 소금을 뿌려 숯불에 구운 아르헨티나의 전통요리 '아사도'
- 3, 4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콜론 극장. 세계 3대 오페라하우스로 손꼽힌다.





파릇한 생동감이 가득했던 지난 5월, KU 골프파빌리온에서 더 클래식 500 제3회 패밀리 골프대회가 열렸다. 미래에셋대우에서 후원하여 소속 선수인 이심비·이다솜 프로와 함께한 이번 대회는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개최되어 회원들에게 짜릿한 즐거움과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글 이영진 에디터

## 이심비·이다솜 프로와 함께한 더 클래식 500 제3회 패밀리 골프 대회

지난 5월 31일, 더 클래식 500에서 주최하는 '제3회 패밀리 골프 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2015년에 처음 개최되어 매년 입주 회원들에게 즐거운 시간과 추억을 선사했던 패밀리 골프 대회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KU 골프 파빌리온의 바른, 미쁨, 혼솔 코스에서 진행되었다. 대회 당일 오전 5시 30분, 다소 이른 시간임에도 더 클래식 500 로비에 모인 회원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오전 일찍 기분 좋게 골프장에 도착한 회원들은 골프복으로 갈아입은 후 클럽하우스에서 간단한 조식을 즐겼다. 이어 개회식, 단체 기념 촬영과 함께 프로 선수들과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패밀리 골프대회 처음으로 프로 선수를 초청하여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불러모았다. 초청된 이심비, 이다솜 프로와 함께한 원포인트 레슨과 Q&A 시간에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퍼팅 자세, 코스별 노하우에 대한 질문에 프로 선수들의 친절한 답변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낸 뒤 조별로 본격적인 라운드 준비에 들어갔다. 오랜 경력과 골프 실력을 자랑하는 회원들인 만큼 열정 넘치는 라운드 시간이 시작되었다. 더 클래식 500



1



2



3

- 1 더 클래식 500 회원들에게 골프 노하우를 설명하고 있는 이다솜 프로선수
- 2 우정과 친목을 다질 수 있었던 패밀리 골프 대회
- 3 대회를 마친 후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기부 이벤트





1

- 1 파주 KU 골프파빌리온에서 열린 대회 시작에 앞서 진행된 기념 촬영
- 2 남자부문 우승자 김영만 회원
- 3 여자부문 우승자 강정자 회원



2



3

임직원 및 프로 2인이 포함된 68명의 골퍼들은 각 4명씩 총 17개의 조로 나누어 라운드를 펼쳤다. 1조부터 6조는 바른 코스에서 미쁨 코스, 7조부터 12조는 미쁨 코스에서 시작해 혼솔 코스, 13조부터 17조는 혼솔 코스에서 바른 코스를 도는 라운드로 진행되었다. 경기는 화창한 하늘 아래 시종일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서 단연 화제를 모은 것은 에이지 슈터 6인의 탄생이다. 에이지 슈터는 모든 골퍼들의 로망일 정도로 쉽지 않은 기록이다. 평소 실전 감각을 잃지 않을 만큼 꾸준히 연습하고 실력을 갈고닦은 회원들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가 내내 이어졌던 대회는 오후 1시경 마무리되었다.

대회를 마친 후에는 연회장에서 이어진 중식과 함께 시상식과 기부 모금 등 훈훈한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시상식은 신페리오 방식으로 남녀 각각 5위부터 우승까지 호명했다. 우승은 김영만 회원과 강정자 회원, 준우승은 홍낙균 회원과 안순례 회원, 3위는 이재우 회원, 조순도 회원에게 돌아갔다. 시상식 현장까지 이어진 사랑의 버디 이벤트에 많은 회원들이 기부하며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난해 기부 금액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 모여 대회 수준을 한층 높인 것은 물론, 참여 회원 모두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 준 순간이었다.

입주 회원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매년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더 클래식 500.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패밀리 골프 대회는 많은 회원들의 취미인 골프를 함께 즐기며 친목 도모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선사했다. 2017년 봄, 세 번째로 펼쳐진 더 클래식 500 패밀리 골프 대회는 더 클래식 500 회원 모두에게 즐겁고, 훈훈한 추억이 가득한 대회로 남을 것이다.

## 자연 속에서 얻는 에너지, 파주 KU 골프파빌리온



### 자연과 공존하는 친자연주의 골프장

기존의 지형을 활용해 과도한 토공을 지양했으며, 공사 중 드러난 자연석과 수목을 최대한 살리고 가파른 자연 그대로의 숲을 이용해 높낮이를 구현했다. 클럽하우스는 단층 건물로 자연과 어우러지며, 인공 호수와 녹지 부분도 조화롭게 계획하여 근사한 경관을 선사한다.

### 세계적인 코스 설계가 '로빈 넬슨'의 시그니처 코스

미국 조경 건축협회가 선정한 '최고 골프장 디자인 상'에 빛나는 로빈 넬슨이 설계했다. 최초 벌목에서부터 최종 세이핑까지 전 과정에 로빈 넬슨의 철학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골프장이다.

### 프로와 아마추어 모두 즐기는 최적의 27홀 코스

모든 코스의 시작과 끝은 클럽하우스를 향하고, 시작 시 태양을 등지고 출발할 수 있게 북향으로 설계했다. 9홀 3개 코스로 구성된 27개의 홀은 모두 페어웨이 폭, 홀 경사, 벙커 깊이, 공략 목표 지점 등이 다채로워 실력, 경험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흥미를 가질 수 있다.

문의 031-930-1600



# Golf is My Life

제3회 패밀리 골프대회 우승 주인공

## 김영만·강정자 회원

제3회 패밀리 골프 대회에서  
우수한 기록으로 각각 남자부와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김영만 회원과 강정자  
회원. 고된 라운딩에 피곤하기도 하련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폈다. 골프가 잘 된 날에는  
고된지도 모르겠다고 두 회원이 입을  
모아 말한다. 오늘의 소감과 골프의  
매력에 대해 들어봤다.

글 백수정 에디터

——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만 회원** | 버디를 네 번이나 놓쳐서 우승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40년 넘게 골프를 치면서 17팀이 참가한 이렇게 큰 대회에서 우승은 처음이라 아주 기쁩니다.

**강정자 회원** | 버디도 몇 번 하고, 파를 죽 해서 '어쩌면 우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더 클래식 500에서 우승을 하니깐 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았어요.

—— 오늘의 우승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정자 회원** |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남편과 함께 어린이대공원까지 운동 삼아 걸어서 다녀오고, 오후에는 근력운동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 더 클래식 500의 메디컬 센터에서 도수 치료도 받고 있죠.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골프를 위해서이기도 해요. 뒤떨어지지 않으려고요. 그만큼이나 골프를 좋아하는답니다.

**김영만 회원** | 저도 근력 운동 등으로 늘 체력을 관리해요. 게다가 얼마 전까지 몇 사람에게 정규적으로 골프 레슨을 해주었는데, 남을 가르치면서 스스로도 자세나 구력 등이 교정된 것 같아요. 또 일주일에 두 번씩은 꼭 라운딩을 돕니다. 더 클래식 500의 패밀리 골프 대회도 매년 꼬박꼬박 참여하고요.

**강정자 회원** | 저도 일주일에 두 번씩은 골프장에 가요. 골프를 꾸준히 치는 사람들에게 주 2회 라운딩은 당연스럽죠. 제1회 패밀리 골프 대회에 참여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첫 대회에서 룡기스트를 수상했답니다.

**김영만 회원** | 저는 홀인원을 세 번 해봤어요. 홀인원이 어려운 것이라고들 하지만 우승이 더 기분 좋군요. 오늘 함께 라운딩했던 더 클래식 500 식구들에게 기분 좋게 한턱내려고합니다. (웃음)



—— 이토록 골프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영만 회원** | 골프를 시작한 1971년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이 골프를 잘 안칠 때라서 어른들께 야단맞을까 골프장에서 숨어 다녔어요. 즐긴다기보다 사업에 필요해서 쳤던 거지요. 그렇게 반평생 이상 골프를 쳤는데 치면 칠수록 골프가 재미있어요. 무엇보다 나이 들어서도 계속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강정자 회원** | 골프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아들이랑 사위랑 같이 필드에 나가면 신나죠. 골프 말고는 자식들과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잘 없잖아요. 아이언으로 쳐서 그린에 올렸는데 핀 옆에 딱 볼을 때면 짜릿하기도 하고요.

**김영만 회원** | 게다가 골프는 전략적으로 테크닉을 구사하고 또 의도대로 적중될 때 상당함 쾌감이 있죠. 코스가 생긴 모양을 보면서 페이드를 쳐야 할지 드로우를 쳐야 할지 두뇌싸움을 펼치는 게 골프의 묘미지요.

**강정자 회원** | 젊을 땐 골프를 쉽게 쉽게 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또 그런 게 재미죠. 골프는 전략다툼이에요.

—— 우승 상금을 기부해 주셔서  
타에 귀감이 되셨습니다.

**강정자 회원** | 좋은 일에 사용하는데 선뜻 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게다가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축스럽네요. 더 클래식 500 이름으로 좋은 일에 쓰인다니, 좋은 날 좋은 기분으로 보냈습니다.

**김영만 회원** | 심장이 아픈 어린이들을 치료하는데 잘 쓰이길 바랍니다. 오늘 우승한 것만으로도 영광스럽습니다. 상금까지 받는다는 건 과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 우아하게 강렬하게 REAL QUEEN STYLE

글 김민정(전 <그라치아> 패션 에디터)



지난해 런던 버킹엄 궁전에서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다. '패션으로 본 통치: 엘리자베스 2세의 스타일 90년'이란 이름의 패션 전시는 엘리자베스 2세가 1953년 대관식에서 입었던 드레스부터, 90세 생일에 입었던 녹색 드레스까지 여왕의 패션 역사를 펼쳐 놓았다. 크로아상을 머리에 얹어 놓은 듯한 풍성한 단발머리, 100미터 전방에서도 눈에 띄는 찬란한 컬러의 옷, 동화 속 할머니처럼 온화한 미소까지, 엘리자베스 2세는 65년

간 영국 여왕으로 살아오며 빈틈 없는 스타일로 영국인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구설수로 인해 왕실의 권위가 흔들린 적도 있었다. 그럴수록 그녀는 기품 있고 빈틈없는 퀸 스타일을 고수하며 영국 왕실의 위엄을 몸소 보여줬다. 엘리자베스 2세의 패션은 단순히 '맛'에만 치중하지 않는다. 한 나라의 여왕이 갖춰야 할 자세, 그리고 패션의 변방에 있는 시니어들에게 원숙한 매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최적의 표본이다.

그의 패션을 정의하는 몇 가지 코드가 있다. 그중 가장 아이코닉한 것은 20파운드짜리 지폐를 장식하고 있는 여왕의 헤어 스타일. 박제된 듯 수십 년째 똑같은 헤어 스타일을 고수 중이다. 헤어 스타일만큼이나 유명한 건 모자 컬렉션이다. 지난 50여 년간 5천 개 이상의 모자를 쓴 여왕은 군주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왕관 대신 모자를 사용했다. 그는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으로 모자와 투피스, 재킷까지 맞춰 입는 것을 즐긴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163cm 정도의 아담한 체구로도 눈에 잘 띄어야 함을 알기 때문이다. "내

가 베이지 색을 입으면, 아무도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을 거예요." 대중 앞에서 하는 것이 업인 여왕에게 컬러풀한 옷은 자신이 아닌, 국민들을 배려한 것이었다. 프린트 중에서는 도트 무늬를 가장 사랑하고, 50년째 2인치 힐이 달린 김정 로퍼만 신는다. 모자를 시작으로 장갑, 브로치, 스타킹, 양말에 이르기까지 액세서리의 컬러를 맞추는 것도 특징이다. 외교에도 곧잘 패션을 이용하는데, 캐나다에 갈 때는 단풍잎 무늬를, 중국에 갈

때는 모란 무늬를 반영한 패션을 선보였다. 이후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선 패션 외교가 유행처럼 퍼지게 되었다. 또 여왕의 '잇백'으로 불리는 로너 런던 백은 수십 년째 변함없이 여왕의 옷장을 채우고 있다. 여왕의 시그니처 룩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다. 스티브 잡스의 블랙 티를넥 룩만큼이나 확고할까. 변덕스러운 트렌드를 쫓는 건 한때의 일이다. 사회 지도층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건 '나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나다운 패션'이다. "옷을 때와 장소에 맞게 잘 입는 것은 국가가 제게 부여한 아주 중요한 임무"라는 마가렛 대처의 말처럼 영민한 리더는 자신이 대중에게 어떻게 기억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야 한다. 곧 100살을 앞둔 엘리자베스 2세에게는 여전히 여왕다운 '우아함'과 '카리스마'의 오라가 느껴진다. 이보다 더 부드럽고 강력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는가. 백 마디 말보다 격식과 의미를 담은 옷차림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92세의 엘리자베스 2세. 그녀의 우아한 패션스타일에서 칼보다 날렵한 리더의 묘를 한 수 배운다.

마가렛 대처부터 현 영국 총리인 테리사 메이, 영국의 왕세손비 케이트 미들턴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여인들은 패션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줄 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에게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로열 패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머니, 엘리자베스 2세에게 패션은 부드러운 칼과도 같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야를 갖는 것.  
바다로 산으로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도심 한가운데서 만끽하는 방법이 있다.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에서 이국적인 청량감을 느낀  
어느 가족의 바캉스 이야기. 스타일링 안유미(FOOD&PROP)

---

# HOLIDAY IN

# *Pentaz*



# HOTEL

---

하늘과 맞닿은  
도심 속 오아시스

가족과 함께 떠나고 싶은 여름. 힐링이 필요하지만 멀리 가기가 부담스럽다면 도심 속에서 찾아보자. 사람들로 북적이는 여름 휴가지가 아닌, 오롯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가지가 있으니까.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스카이풀은 서울 한복판, 초고층 빌딩숲 사이에 자리해 있어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여유를 선사한다. 하늘과 맞닿은 수면에서 반짝이는 햇살을 즐기며, 멀리 보이는 산자락과 도심의 풍경에 느긋하게 빠져들기 충분하다. 아이들은 역시 물놀이 할 때 제일 즐겁다. 도심 속 탁 트인 하늘 아래 수영장에서 아이와 잊지 못할 한여름의 추억 한 페이지를 채워보면 어떨까.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썸머 스카이풀 패키지'로 굳이 멀리 가지 않고도 휴양 리조트에 온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수영장 스카이풀에서 물놀이를 즐긴다면 이 순간 단순한 바캉스 이상의 힐링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가족과 함께하는 단란한 휴식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은 여타 호텔에 비해 넓고 쾌적한 객실인 수페리어 스위트(125.62㎡), 스위트(125.62㎡), 주니어 스위트, 디럭스의 총 4종류의 룸을 자랑한다. 스위트룸의 주방은 원목 소재 아일랜드 스타일의 다이닝 공간으로 와인셀러, 오븐, 조리기구 등을 구비하고 있어 오래 머물러도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최고급 대리석과 원목을 사용한 세련된 인테리어의 거실은 우리 가족만의 편안하고 단란한 시간을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다.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아내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오붓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자. 가족이 하나되기 좋은 공간 그리고 시간. 눈부신 여름, 반짝이는 가족의 사랑을 발견해보자.







## 현실에서 꿈으로 향하는 공간

침실은 현실에서 꿈으로 향하는 통로다. 물놀이의 즐거움을 그대로 들여와 기분 좋은 재충전의 꿈이 펼쳐질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스위트룸의 침실. 간결하게 정돈된 브라운 톤으로 특유의 고급스러운 감각이 배어 있는 공간이다. 거실에서 분리된 아늑한 침실에서의 하룻밤은 심신의 안정을 되찾아 주며, 그간의 모든 스트레스와 물놀이로 인한 피로를 말끔히 풀어준다. 포근한 베개와 시트가 갖춰진 침실에서 달콤한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자.



품격 있는 여유로움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스카이풀  
SUMMER PACKAGE EVENT



서울 한복판, 50층 초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한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의 야외 수영장 스카이풀(Sky Pool)에선 도심 속에서 푸르른 하늘의 자유와 여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은 6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썸머 스카이풀 패키지'는 스위트와 슈퍼리어 스위트 2종으로 구성됐다. 2인 기준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스위트에는 스위트룸 2인 숙박권, 야외수영장 스카이풀 2인 이용권, 피트니스 2인 이용권, 웰컴 하우스 레드와인 1병, 와인바 라비앙로즈 드링크 2잔, 스파 50% 할인권 등이 포함된다.

3인 기준인 슈퍼리어 스위트는 슈퍼리어 스위트룸 3인 숙박권, 스카이풀 3인 이용권, 피트니스 3인 이용권, 웰컴 하우스 레드와인 1병, 라비앙로즈 드링크 3잔, 스파 50% 할인권 등이 제공된다. 조식은 스위트와 슈퍼리어 스위트 각각 2만 원과 3만 원을 추가하면 기준인원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패키지 가격은 스위트가 주중 27만 9,000원 주말 33만 9,000원이며, 슈퍼리어 스위트는 주중 29만 9,000원 주말 36만 9,000원이다. 성수기 시즌인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객실당 1만 원이 추가된다. 자세한 사항은 펜타즈 호텔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객실 문의 02-2218-5777





# LA GOUTTE

## SIGNATURE MENU

고객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라구뜨만의 비법은 무엇일까. 그 답은 산지 직송의 신선한 식재료와 오가닉 조리법, 그리고 언제나 최상, 최고의 요리 제공을 철칙으로 삼는 김성국 총괄셰프에게 있다. 이 비법들을 오롯이 담아내며 폭넓은 연령층에게 꾸준히 사랑 받는 시그니처 메뉴를 공개한다.

### COLD

#### 대게

대게를 센 불에 찌서 육즙은 유지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다.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 세포를 활성화하는 핵산 성분이 풍부하다.

#### 쌀국수 샐러드

여러 가지 야채와 양념에 숙성시켜 볶은 갈비살과 쌀국수면을 매콤달콤한 소스로 버무렸다. 여기에 커민, 파프리카, 칠리, 카레, 고수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입맛을 돋운다.

#### 그릭 샐러드

여름철 식단에 빠질 수 없는 토마토 샐러드이다. 토마토, 페타치즈, 오이의 색상이 조화롭다. 아삭함도 살아 있어 맛도 산뜻하다. 눈과 입 모두 싱그러워진다.







## HOT

### LA갈비

10여 가지 재료로 만든 특제 양념소스가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일정한 두께로 고기를 썰어 계절에 따라 숙성시간을 달리했다. 직화구이 방식으로 촉촉한 즙을 느낄 수 있으며 식감도 잘 살아있다.

### 양갈비구이

청정지역 뉴질랜드산 100% 방목으로 키운 10개월 미만의 어린양을 각종 향신료로 마리네이드하여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잡내를 제거했다. 별도의 소스 첨가 없이 그릴만으로도 거부감없이 즐길 수 있다.

### 탕수육

질 좋은 국내산 돼지고기 등심을 하루 동안 정성스럽게 숙성시켜 특유의 양념으로 재운 뒤 바삭하게 튀겨냈다. 여기에 다시마를 우려낸 육수로 만든 깊은 맛의 라구뜨 특제 탕수육 소스를 곁들였다.



## DESSERT

### 마카롱

프랑스 왕실에서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던 고급과자인 마카롱은 아몬드파우더와 슈가파우더를 이용해 이탈리아안 머랭 기법으로 완성했다.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러워 타 제품과 차별화를 이룬다.

### 피칸파이

피칸 필링을 얹은 파이로 바삭바삭 씹히는 식감이 매력적이다. 바닐라향으로 맛을 내어 고소함과 달콤함까지 지녔으며, 파이의 도우는 2회에 걸쳐 구워내 식감과 맛 모두 일품이다.



라구뜨의 여름맞이 메뉴 소개

COLD



냉짜장면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에 시원한 짜장 소스가 어우러져 푸짐하게 입맛을 돋운다. 오이와 각종 채소까지 곁들여져 고명으로 얹어 여름철에도 든든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차게 먹는 짜장면' 요리다.



렌틸과 토마토 오이 샐러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좋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 받는 렌틸을 이용한 샐러드다. 담백한 렌틸에 시원한 즙이 터지는 오이를 더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맛을 완성했다.



스시

여름철 생선은 신선도가 생명이다. 신선한 참치와 광어, 연어, 농어 등 엄선한 생선으로 초밥을 빚어냈다. 초밥에 홍식초를 첨가하여 맛과 풍미까지 한층 더 끌어올렸다.



전복물회

어부들이 배에서 회에 고추장, 된장을 넣고 물을 부어 마시듯 먹던 음식에서 유래했다. 특제양념으로 맛을 내고 전복과 제철 채소를 넣어 더위로 잃은 입맛을 되찾아주는 여름철 별미다.



꽃게장

살이 가득 찬 통통한 꽃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깔끔한 맛의 라구뜨 특제 간장을 사용했다. 한입 문 순간 꽃게 특유의 향긋한 풍미가 살아 입안 전체에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HOT



어항가지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섭취하면 좋은 가지를 이용한 요리다. 바삭하게 튀겨낸 가지 위에 제철 채소를 넣어 볶은 어항 소스를 끼얹어 단맛, 매콤한 맛, 새콤한 맛을 조화롭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미트소스 콘길리에

조개 껍질을 닮은 재미있는 모양의 콘길리에 파스타에 미트 소스를 듬뿍 머금게 했다. 재미있는 모양으로 눈을 즐겁게 하고, 질 좋은 고기와 토마토를 이용해 만든 미트소스, 고소한 치즈로 풍미를 더했다.

DESSERT

펜타즈 호텔의 뷔페 라구뜨가 여름을 맞아 다채로운 제철 메뉴를 선보인다. 더위에 지친 고객들을 위한 기력과 입맛을 한 번에 돌우는 라구뜨의 **프리미엄 서머 푸드.**

문의 02-2218-5770



레드벨벳 케이크

코코아를 넣은 초콜릿 케이크의 일종이지만 많이 달지 않게 구워냈다. 촉촉한 시트와 크림치즈 특유의 부드러움이 잘 어우러져 달콤하고 고급스런 풍미를 선사한다.



유자 커스터드 푸딩과 쇼콜라 파나코타

유자 커스터드 푸딩은 크림처럼 달콤한 커스터드에 유자를 가미해 새콤달콤한 여름 디저트로 완성했다. 쇼콜라 파나코타는 은은한 초콜릿과 부드러운 커스터드의 조화로운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나를 빛나게 하는 파티 플레이스

## 웨딩홀 & 연회장

평생 잊을 수 없는 결혼식부터  
아늑한 연회 모임까지

최상의 품격과 고결한 완성, 변하지 않는 문화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더 클래식 500에는 크고 작은 모임을 위한 다양한 연회홀이 마련되어 있다. 스마트한 신혼부부 및 고급스러운 컨퍼런스 장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대연회장 GRAND BALLROOM을 비롯하여 우아하고 아늑한 모임 중·소연회장 AZALEA, IRIS 등 다양한 규모의 공간에서 늘 새롭고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진다.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은 모든 결혼식 및 연회에 호텔 총괄 셰프의 엄선된 코스 요리를 서비스한다. 최고급 양식 코스부터 정통 한식, 신선하고 맛깔스러운 뷔페까지 준비되어 있어 신랑, 신부는 물론 하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찰나의 순간이 영원히 빛을 발하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면,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의 맞춤형  
연회 공간을 둘러보자.





### 품격 있는 맞춤 웨딩과 대형 컨퍼런스 GRAND BALLROOM

대연회장 GRAND BALLROOM은 오피니언 리더가 원하는 클래식하면서 중후한 기품이 느껴지는 컨셉으로 꾸며졌다. 만찬은 150명, 세미나는 최대 2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동시예식으로 진행된다. 테이블 세팅, 플라워 데코레이션 등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모임 장소 AZALEA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자리를 찾는 이들을 위한 중연회장 AZALEA. 60명까지 참석할 수 있어 중규모 컨퍼런스, 지인들과의 친목 모임, 돌잔치 등의 친지·가족 모임 등을 치르기 좋다. 세심한 서비스가 더해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매력적이다.

### 아담하고 고귀한 프라이빗 미팅 IRIS

조용하지만 품격 있는 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어울리는 소연회장 IRIS. 20명 이내의 친지·가족 모임, 동호회, 정찬 모임 등 소모임에 적합한 곳이다. 정성스러운 서비스와 맛, 특별한 분위기를 더해 어떤 모임을 주최하더라도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얻는 자리가 될 것이다.



### DIY 웨딩 프로그램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은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호텔 분위기에서 맞춤형 하우스 웨딩을 꿈꾸는 예비부부를 위한 'DIY 웨딩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기존 호텔 예식에서는 제한이 많았던 하객 인원과 플라워 연출, 식사 등 예식 전 부문 옵션 사항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20여 명 내외의 소규모 웨딩부터 최대 200명까지 예약제로 진행한다. 취향껏 원하는 웨딩을 준비할 수 있어 합리적인 호텔 결혼식을 원하는 예비부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 교통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외곽순환도로에서 접근이 쉬우며, 대중교통은 건대입구역을 이용하면 된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바로 연결되어 편리하다.

### 문의

02-2218-5300



# 따뜻한 금융으로 고객 가까이, 중앙농협

## 추진실적 1위 엄기화 차장

‘은행은 금전거래만 하는 곳’이라는 편견을 깨고 더 클래식 500 고객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 은행이 있다. 바로 중앙농협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엄기화 차장이 있다.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중앙농협은 더 클래식 500 고객과 즐겁게 소통하며 행복을 전파하고 있다. 이는 고객에겐 또 다른 이자이며, 저금리 시대 다른 은행에서는 결코 제시하지 못하는 고수익 부가가치다.

20년간 방치된 농지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고, 30년 동안 잊었던 땅을 되찾아 주는 은행 직원. 자식도 잊은 음력 생일을 챙겨주는 걸로 모자라 제철마다 산해진미를 함께 맛보는 친구 같은 은행 직원. 우울할 때 웃겨 주고, 속상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이런 은행 직원이 과연 존재할까?

이는 더 클래식 500과 6년째 함께 해온 중앙농협 엄기화 차장의 이야기다. 그는 더 클래식 500 입주 회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때면 “웃겨 죽거나, 배터져 죽거나”라는 슬로건 아래 본래의 명함을 살짝 내려 놓는다. 상황에 맞게 때론 가이드, 때론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된다. 늘 조용하기만 하던 이동 중 버스는 엄 차장의 농담으로 떠들썩해진다. 1년치 웃음을 선물하여 입주 회원들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자처하는 것이다. 그의 고객 서비스 정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행 후에 멋진 사진을 모아 앨범을 선물하면 고객들은 감동을 받곤 한다. 이렇게 더 클래식 500 입주 회원들과 늘 즐겁게 소통하며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금융실적도 따라왔다. 엄기화 차장은 현재 은행과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롤모델로서, 농협직원 10만 명중 추진실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

농협은 사회공헌도 5년 연속 1위를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은행이다. 현재 직원 10만 명, 5,000여 개의 점

포가 있는 슈퍼뱅크로서 금융업계 ‘빅 5’로 꼽힌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시·군 금고를 유치하는 등 공공성이 강하다. 청와대, 국회까지도 농협이 입점해 있으니 실로 금융업계에서 그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시중 은행들은 외국자본이 70~80% 이상을 차지하여 대부분 배당금이 해외로 나가고 있지만, 농협은 100% 순수 국내자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든 배당이 국민, 특히 농민들에게 주어지면서 어려운 농촌경기와 내수경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농협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윤추구보다는 조합원을 위한 봉사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준다. 회사는 보통 자본금 배당만 하지만, 농협은 출자배당 외에도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제공한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농협 중 더 클래식 500에 가까이 있는 농협이 바로 중앙농협이다. 자양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앙농협은 12개의 본·지점을 가지고, 더 클래식 500 입주 회원들과는 2011년부터 꾸준히 교류해오고 있다. 중앙농협은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틀에 박힌 은행의 느낌보다는 정 많고 친근한 고향의 분위기다. 즐거운 소통으로 고객에게 행복을 전파하는 것은 농협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자이며, 저금리시대에 다른 은행에선 결코 줄 수 없는 고수익 부가가치다. 고객들이 거래를 한 번 시작하면 바꾸지 않고 계속하게 되는 이유도 이런 중앙농협만의 경쟁력 때문일 것이다.

가볍게 들러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휴식 같은 공간, 중앙농협. 고객들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중앙농협은 고객들에게 친근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것이다.

문의 02-490-1413 / 010-2311-9281



## 커뮤니티 프로그램

2017. 06. 01 — 2017. 08. 31

| 프로그램명         | 요일 | 시간            | 장소       | 강사명 | 수강료       |
|---------------|----|---------------|----------|-----|-----------|
| <b>음악</b>     |    |               |          |     |           |
| 신나는 금요일 노래교실  | 금  | 10:30 ~ 11:30 | 4층 다목적실2 | 황선정 | 무료        |
| 토요 남성 통기타     | 토  | 14:00 ~ 15:30 | 4층 다목적실2 | 안승제 | 5만 원(1개월) |
| 토요 여성 통기타     | 토  | 15:40 ~ 17:10 | 4층 다목적실2 | 안승제 | 5만 원(1개월) |
| 1:1 개인 통기타 교습 | 개별 | 시간조정          | 4층 다목적실2 | 안승제 | 4만 원(1회)  |

## 건강

|                |      |                    |           |              |                |
|----------------|------|--------------------|-----------|--------------|----------------|
| 탁구교실(1:1 개인교습) | 월, 수 | 13:00 ~ 15:30(10분) | B동 4층 GX룸 | 김연경          | 5만 원(1개월)      |
| 검도             | 화, 목 | 19:00 ~ 21:00      | 4층 다목적실1  | 이봉주 회원(재능기부) | 무료             |
| 예술치유반          | 수    | 14:30 ~ 15:20      | 4층 다목적실2  | 황인옥          | 무료(재료비 별도)     |
| 예술치유 미술중점반     | 목    | 14:30 ~ 16:30      | 4층 다목적실3  | 황인옥          | 8만 원(재료비 별도/월) |

## 예술

|           |   |               |             |     |            |
|-----------|---|---------------|-------------|-----|------------|
| 그림교실(서양화) | 토 | 19:00 ~ 21:00 | A동 7층 다알리아2 | 이은규 | 6만 원(1개월)  |
| 도예반       | 월 | 15:00 ~ 17:00 | A동 7층 다알리아2 | 이재철 | 12만 원(1개월) |

## 댄스

|             |   |               |          |        |           |
|-------------|---|---------------|----------|--------|-----------|
| 왕초보 라틴(차차차) | 월 | 11:00 ~ 11:50 | 4층 다목적실1 | 김복옥    | 5만 원(1개월) |
| 왕초보 모던(왈츠)  | 목 | 11:00 ~ 11:50 | 4층 다목적실1 | 진보성    | 5만 원(1개월) |
| 소셜 기초       | 수 | 16:00 ~ 16:50 | 4층 다목적실1 | 박강현    | 5만 원(1개월) |
| 소셜 초급       | 수 | 17:00 ~ 17:50 | 4층 다목적실1 | 박강현    | 5만 원(1개월) |
| 발레 기초반      | 목 | 16:00 ~ 17:30 | 4층 다목적실1 | 최성이 회원 | 6만 원(1개월) |
| 자이브 왕초보반    | 월 | 11:00 ~ 11:50 | 4층 다목적실1 | 김복옥    | 5만 원(1개월) |
| 한국무용        | 목 | 15:00 ~ 15:50 | 4층 다목적실1 | 김운자    | 5만 원(1개월) |

## 컴퓨터 IT

|                   |      |               |             |     |            |
|-------------------|------|---------------|-------------|-----|------------|
| 컴퓨터 왕기초반          | 화, 목 | 09:00 ~ 10:20 | A동 7층 프리지아2 | 장정현 | 15만 원(3개월) |
| 참 쉬운 실생활 컴퓨터(활용반) | 화, 목 | 10:30 ~ 11:50 | A동 7층 프리지아2 | 장정현 | 15만 원(3개월) |
| 실생활 스마트폰          | 화    | 10:00 ~ 11:30 | 4층 다목적실2    | 조민하 | 무료         |

\* 실생활 스마트폰 프로그램은 7월 휴강이며, 8·9월 정상 수업 진행합니다.

## 어학

|                   |      |               |             |              |           |
|-------------------|------|---------------|-------------|--------------|-----------|
| 말문이 트이는 영어회화(A)   | 화, 목 | 14:30 ~ 15:20 | A동 7층 다알리아2 | 조영숙 회원(재능기부) | 6만 원(3개월) |
| 왕초보 영어회화          | 화, 목 | 16:00 ~ 16:50 | A동 7층 다알리아2 | 조영숙 회원       | 6만 원(3개월) |
| 말문이 트이는 영어회화(B)   | 화, 목 | 17:30 ~ 18:20 | A동 7층 다알리아2 | 조영숙 회원       | 6만 원(3개월) |
| 말문이 트이는 영어회화(C)   | 화, 목 | 20:00 ~ 21:00 | 4층 다목적실3    | 조영숙 회원       | 6만 원(3개월) |
| 말문이 트이는 일본어회화(초급) | 월, 수 | 19:00 ~ 20:00 | 4층 다목적실3    | 고영자 회원(재능기부) | 6만 원(3개월) |
| 말문이 트이는 일본어회화(중급) | 월, 수 | 10:00 ~ 11:30 | 4층 다목적실3    | 고영자 회원       | 6만 원(3개월) |

## 동호회

### 더 클래식 500 하모니 합창단

전문가의 지도하에 아름다운 화음을 자아내고 공연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표현하는 동호회

**일시** 월 15:50 ~ 17:20

**회비** 연 24만 원

### 댄스스포츠

왈츠, 라틴, 자이브, 기본 스텝 등으로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

**일시** 월·화·목·금 09:00 ~ 09:50 (주 4회)

**회비** 연 35만 원

### 숙녀회

골프를 좋아하는 여성 회원만을 위한 동호회

**일시** 매월 셋째 주 수요일 (혹서기·혹한기 휴회)

**회비** 연 10만 원

### 자원봉사단

후원과 자원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단

**일시** 별도 공지

**회비** 무료

### 바둑

바둑 대국을 통해 정신 수양은 물론 활기와 즐거움을 더하는 동호회 (바둑대회: 반기별 1회)

**일시** 금 15:00 ~ 18:00

**회비** 연 10만 원(입회비: 10만 원)

### 검도

심신을 단련하는 검도인의 모임

**강사** 이봉주 회원 재능기부

**일시** 화·목 19:00 ~ 21:00

**회비** 무료

### 문향루(서예)

묵을 통해 정신 수양을 도모하는 동호회

**일시** 수 17:00 ~ 18:00

**회비** 무료

### 인터넷

온라인상 메일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는 동호회

**일시** 별도 공지

**회비** 무료

## 2017년 여름 이벤트 캘린더

### 6월

|            |    |    |    |    |    |    |    |
|------------|----|----|----|----|----|----|----|
|            |    |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b>4주차</b> | 25 | 26 | 27 | 28 | 29 | 30 |    |

**4주차 동호회:** 댄스동호회 상반기 댄스파티  
**이벤트:** 'Sports Day' 프로야구 직관

### 7월

|  |       |       |    |    |    |    |    |
|--|-------|-------|----|----|----|----|----|
|  |       |       |    |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 23/30 | 24/31 | 25 | 26 | 27 | 28 | 29 |

**5주차 이벤트:** 한여름밤 야외영화제 1일차

### 8월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 <b>1주차</b> | 6  | 7  | 8  | 9  | 10 | 11 | 12 |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 27 | 28 | 29 | 30 | 31 |    |    |

**1주차 이벤트:** 한여름밤 야외영화제 2일차

문의 02-2218-5000



## 오명 회원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명예의 전당 입성



더 클래식 500에 거주하고 있는 오명 회원이 미국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명예의 전당에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안았다.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공과대학에서 전자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오명 회원은 한국으로 돌아와 관계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경제 부총리와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스토니브룩 측은 오명 회

원이 한국뉴욕주립대 설립에 기여하고 한국 정보통신 분야의 선구자로 큰 두각을 나타낸 공로를 높이 사 공과대학 내에 '오명홀'도 건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명 회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성공한 성과를 인정받아 1989년 스토니브룩으로부터 '유니버시티 프로페서 (University Professor)'로 임명된 바 있다.

## 바둑 동호회, 바둑기사 초청 이벤트

더 클래식 500의 대표 커뮤니티인 바둑 동호회(회장 황재현)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열었다. 지난 5월 12일, 독보적인 실력을 갖춘 조혜연 프로와 함께 하는 릴레이 바둑 대전 자리를 마련했다. 조혜연 프로는 한국 여자 바둑계의 리더로서 일본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젠(Zen)'과 특별 대국을 펼쳐 조명을 받은 바 있다. A동 5층 스타게임

룸에서 펼쳐진 릴레이 바둑 대전은 쉽고 재미있는 조 프로의 바둑 해설로 동회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국을 관전하던 조혜연 프로 역시 회원들의 실력에 놀라움을 표현하며,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바둑을 즐길 수 있기를 권했다. 바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대와 실력을 뛰어넘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다.



## 제5회 하모니 합창단 정기공연 개최



여성 회원들로 구성된 지휘자 권동현이 이끄는 '하모니 합창단(회장 이민정)'이 5월 25일, 더 클래식 500 A동 4층 다목적실에서 'Never Ending Story' 공연을 성황리 개최했다. 입주 회원 및 가족, 지인들이 함께한 이번 공연은 하모니 합창단의 'Festival Sanctus'를 시작으로 해금연주자 우상은과 대금 연주자 안현영이 하모니 합창단과 '산촌'을 선보여 관객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더 클래식 500 하모니 합창단은 회원들의 음악활동을 통한 정서함양과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지난 2010년 창단하고 매년 1회 이상 공연에 참가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전해왔다.



GYM



GYM



SWIMMING



SPA

FOR YOUR  
HEALTHY LIFE

THE CLASSIC 500 PENTAZ HOTEL  
FITNESS CLUB

ADDRESS : 90 Neungdong ro, Gwangjin-gu, Korea 05065  
TEL : +82-2-2218-5800  
WEBSITE : www.pentaz.co.kr





동아일보 주관  
2016 한국 시니어 산업 대상  
프리미엄 시니어타운 부문

THE CLASSIC 500  
PRIVATE SENIOR SOCIETY

# 당신을 위한 새로운 삶의 시작 프라이빗 시니어 소사이어티 더 클래식 500

이 시대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커뮤니티,  
24시간 메디컬 케어 서비스, 6성급 호텔을 뛰어넘는 시설과 감동의  
서비스까지 이제껏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감동적인 삶이 시작되는 그 곳,  
프라이빗 시니어 소사이어티 더 클래식 500



안내문의 : 02) 2218-6000

위치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90(구 자양동) 더 클래식 500

[www.theclassic500.com](http://www.theclassic500.com)